

하이브리드도서관을 위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일본 큐슈대학 중앙도서관의 적용 사례 -

A Study on Space Organization for the Hybrid Library - An Application to the Central Library of Kyushu University -

유 병 장**
Byeong-Jang Ryu

차 례

1. 서론	4. 큐슈대학 중앙도서관의 공간구성 제안
2. 도서관의 환경변화와 건축물로서의 평가 지침	5. 결론
3. 큐슈대학 부속도서관 운영현황 및 중앙도서관의 공간구성 분석	· 참고문헌

초 록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방대해지고 검색엔진이 고도화되면서 웹을 사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전자책 등 디지털 자료는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정보에 대한 수요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자료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 자료와 디지털 자료의 모두를 한 공간에서 다루는 새로운 도서관의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문헌조사, 큐슈대학 부속도서관의 각종 통계자료 분석, 도면 및 현장조사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은 자료의 제공 이외에도 학습의 장소, 커뮤니티를 위한 사람들의 교류의 장소 등 사회·문화적 역할도 중요하며, 또한 디지털 자료의 비중이 커지면서 도서관 “공간”의 역할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도서관의 공간을 매체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주제 중심으로 하나의 공간에 재구성하는 하이브리드도서관에서는 이용자가 동일한 지역에 체류하면서 도서관자료나 인적서비스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키 워 드

공간구성, 도서관건축, 하이브리드도서관, 대학도서관, 큐슈대학 도서관

* 이 논문은 일본 『큐슈대학 부속도서관 연구개발실연보』에 일본어로 번역(공동 저자)되어 수록될 예정으로, 2장은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축약한 것임.
 ** 일본 큐슈대학 부속도서관 연구개발실 방문연구원
 (Visiting Researcher,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Kyushu University Library, lyubj@naver.com)
 • 논문접수일자: 2010년 5월 31일
 • 최종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28일

ABSTRACT

It's getting popularized to collect information connecting web sites with massive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advanced search engines. Users can handle digital materials like E-book wherever the internet is available and they will demand digital information increasingly. This study analyzes literature investigation, statistics analyses of the attached library of Kyushu University, drawings and field investigation to suggest a new model of a library which handles traditional paper-formed materials and digital-formed materials at one place with growing importance of digital materials. It results that a library performs a important role like a learning space and functions as a sociocultural communication space. Also it shows that it is required to basically reinvestigate the role of 'space' in the library with a great importance of digital materials. In the hybrid library combined with subjects and reorganized at one place, One-stop services like library materials and manpower can be provided for users staying at the same area.

KEYWORDS

Space Organization, Library Construction, Hybrid Library, University Library, Kyushu University Library, Learning Common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학도서관은 대학에 있어서 교육·연구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대학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조직화·보존하여, 이용자의 연구·교육·학습을 위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

c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디지털화, 인터넷 등 정보환경에 익숙한 이용자의 정보 요구의 변화와 정보자료 및 정보이용 형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의 이용환경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열람실의 공간구성을 도서관자료의 형태를 기준으로 개가 열람실, 참고도서, 신문열람실, 연속간행물실, 인터넷 살롱, Cute Commons¹⁾ 등으로 구분

1) 큐슈대학 중앙도서관의 Cute Commons는 일종의 Learning Commons로 참고도서열람실을 리뉴얼해서 만들었다. 주요 기능은 학부 학생의 학습 장소, 수업과의 제휴 장소, 자유 참가형 이벤트 장소 등 새로운 학습 장소이다.

하여 왔다. 그러나 전자자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도서관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의 도서관자료의 형태 중심에서 주제 중심으로 한 공간구성을 통해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새로 건립하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오픈스페이스 기반의 모든 자료를 망라하는 주제 중심의 공간구성이 바람직하다.

1990년 초반 미국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환경 및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변화에 대응하기 Information Commons가 도입되었다(정미경 2008, 110). Information Commons는 기술과 디지털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Information Commons의 개념에 교육과 협업을 강조하는, 즉 Information Commons의 개념을 포괄하는 Learning Commons로 발전하고 있다(York University Libraries 2010). 그러나 Learning Commons의 경우도 도서관 전체의 공간 중에서 하나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인쇄 자료와 디지털 자료 등 주제 중심으로 통합된 이용자 서비스의 공간구성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모든 자

료의 통합을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정보기술을 결합하여 이용자의 연구와 학습, 그리고 개인과 그룹별 커뮤니케이션 공간 등 이용자가 동일한 지역에 체류하면서 도서관자료와 인적 서비스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도서관의 모델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본 큐슈대학 중앙(문계)도서관(九州大学 中央(文系)圖書館; 이하 큐슈대학 중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큐슈대학은 『큐슈대학부속도서관이전계획(九州大学附屬圖書館移轉計劃)』에 따라 이토지구(伊都地區)로 부속도서관 중 이계도서관(理系圖書館)은 2009년에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고, 중앙도서관은 2017년까지 이전 예정에 있다(九州大学附屬圖書館 2007, 3). 따라서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요구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도서관에 대한 공간구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새로 건립하는 중앙도서관의 건축계획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큐슈대학 부속도서관의 각종 통계자료 분석, 도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도서관의 공간구성을 분석하였다. 그

다양한 스타일로 학습과 수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스스로 테이블과 의자를 자유롭게 레이아웃을 할 수 있다. 특히 그룹에 의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주목적으로 도서관 자료, e자료에의 액세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유통성을 살려 각종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이용자 간의 교류의 장소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소음 등의 문제로 주요 기능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출처: 러닝커먼즈(仮称)의運用について(案). 2009. 10. 28).

리고 이를 근거로 주 층인 2층과 3층에 자료의 주제 중심으로 전통적인 종이 자료와 디지털 자료를 하나의 공간에 통합 배치하여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하이브리드도서관의 새로운 공간구성 모델을 제안하였다.

2. 도서관의 환경변화와 건축물로서의 평가 지침

도서관 환경의 변화는 사회·문화적 환경변화, 도서관 환경의 변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도서관으로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건축계획에서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도서관시설이 기능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건축계획과 설계과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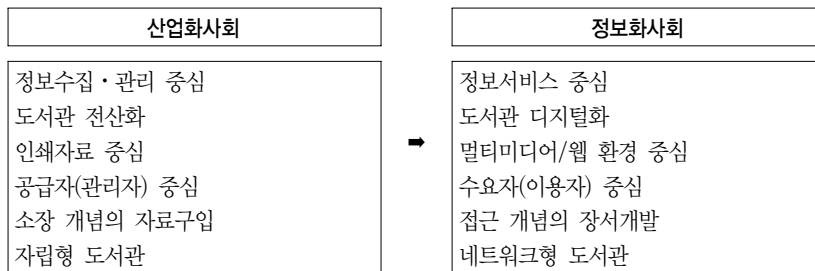
2.1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도서관 건축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

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새로운 형식의 시설의 등장은 시대적·사회적 현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건축물은 순수한 형태나 추상적인 공간으로만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건축물은 사회적·건축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 사유는 건축물이 내재적인 자율적 원리에 의해서만 구축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환경들 속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임호균 2007, 16).

정보 전달 및 저장 체계의 디지털화와 멀티미디어화는 현대 다원적 사회의 정보혁명이 야기한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도서관 서비스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축으로 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협력을 통한 각종 자료의 제공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정보 개념의 변화와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대학도서관의 서비스영역의 공간구성에 Information Commons를 도입하는 등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



※출처: 유병장 2009, 9 (그림 2-1)

〈그림 1〉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기능변화

편 정부에서도 정보 전달 및 저장 매체의 디지털화에 적합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 『도서관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였고(유병장 2009, 9) 국립중앙도서관은 2009년 Information Commons 기반의 디지털도서관을 새로 건립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10). 따라서 현대의 다원적인 사회에서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은 이러한 새로운 정보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2.2 기술적 환경의 변화

2.2.1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 및 정보매체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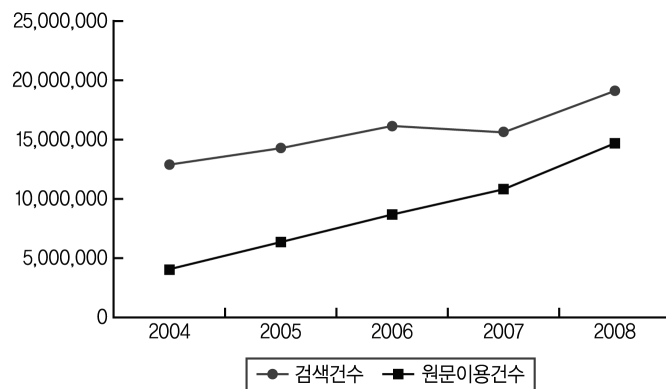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가 양적으로 대량화되고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정보 전달 및 저장 매체가 디지털화, 멀티미디어화 되고

있다. 그 동안 인쇄자료 중심의 정보 전달 및 저장 매체가 CD, 컴퓨터 파일, DB, DVD, e-Book, e-Learning, e-Journal, VOD, 웹 DB 등 디지털 및 미디어자료로 다양화되고 각종 정보자료들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 및 멀티미디어화 되고 있다.

한국 대학도서관의 전체 자료구입비 중에서 전자정보 구독비의 비율은 2002년도 14.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도 22.1%를 정점으로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전자정보 구독비 중에서 전자저널 구독비 비율이 50.8%, 웹 DB 구독비 비율이 38.5% 등으로 전자정보 구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33).

〈그림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의 학술정보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학술정보의 검색건수, 원문이용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디지털 및 멀티미디어자료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화통계 이용 그래프 작성
〈그림 2〉 RISS의 학술정보 이용현황

에 대한 열람환경 및 배가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예를 들면 여행에 관한 자료인 도서·연속간행물을 디지털 및 멀티미디어자료와 함께 배가를 하고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같은 주제에 대한 모든 자료를 통합하여 열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람환경은 디지털 및 멀티미디어자료의 열람에 필요한 기기의 설치 위치 및 공간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Lux, Claudia 2002, 29).

그러나 인터넷 기반의 통신기술의 발달로 도서관 환경이 인쇄매체 중심의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에 디지털도서관 서비스가 가미된 하이브리드도서관으로 진화될 것이고 새로운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상호대차서비스, 분담 목록 등 협력형 도서관서비스가 증가되어 도서관 건축계획 시에는 이에 따른 공간구성계획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2.2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도서관의 변화

유비쿼터스 환경은 지금처럼 책상 위 PC의 네트워크화뿐만 아니라 장소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으로 인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도서관을 방문할 필요성은 점차 감소되고 있고, 2010년 4월 iPad의 등장(KT경제경영연구소 2010)은 이를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대학도서관들은 책이 없는 디지털도서관의 설립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서울경제 2010).

이와 같이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은 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은 여전히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도 물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공간이며 실물 자료와 전자 자료를 모두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공간의 설계와 서비스가 요구된다(차미경 2006, 340-341).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이에 적합한 분야별 디지털 정보원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 정보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정보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전 세계의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관문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도서관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3 건축물로서의 도서관의 평가 지침

2.3.1 환경의 변화와 도서관 건축

대학서관은 대학의 학술연구 기반시설로서 이용자의 연구 및 교육·학습 등을 위한 이용 요구에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은 사회·문화적 환경, 도서관 환경, 도서관 기능 등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하고 공간구성 등 시설도 이러한 변화에 기능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도서관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서관 기능을 담는 그릇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목적과 기

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입지 및 방위, 동선, 규모 및 공간구성 등이 합리적이고 경제 적이며 융통성, 간단성, 접근성, 확장성, 다양 성, 안락성, 안전성 등을 두루 갖추어 이용자 의 다양한 요구와 정보전달 매체의 변화, 도서 관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3.2 입지

도서관을 어디에 건립하느냐는 어떠한 건물 로 하는지 보다 몇 배 더 중요하다(日本フ ァイリニグ 1998, 24). 한국의 2007년도 독서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학생의 경우 ‘도서관 이 집에서 멀다’가 38.2%로 가장 높았고(국립 중앙도서관 2007, 85), 일본의 도심지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도서관 선택이유로 첫 번째가 접근성을 들고 있다(박인규 2002, 86).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대학도서관도 도서관의 입지를 어디에 정하느냐는 도서관의 이용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용자의 생활동선이 접해있고 사 람들의 이동이 많고, 교통이 편리하여 한 사람 이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이용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차미경 2006, 341)가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확장을 위하여 여유 있는 장소가 좋다.

도서관의 방위는 열람실의 경우는 햇볕이 직접 들어오지 않아 안정되고 편안하게 열람 을 할 수 있고 자료의 보존에 유리한 북쪽, 동

쪽 등을 향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햇볕이 직접 들어오는 남쪽과 서쪽은 피하는 것이 좋다. 태 양의 직사는 책을 위해서도 독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남쪽과 서쪽의 전면 유리 벽 등은 햇볕의 차단에도 부담이 크고, 에어컨 가 동에도 고비용이 든다(日本フ ァイリニグ 1998, 25).

부지의 형태는 장방형의 대지가 바람직하며 다양한 접근계획을 위하여 2면의 도로에 인접 한 부지로서 어느 도로에서든지 접근 및 출입 이 용이하며, 지형이 평탄한 대지거나 지형이 평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계획이 가능한 장소가 좋다. 휠체어용 주차 스페이스 는 비 오는 날의 이용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장 래의 증축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계 획에 반영해서 도서관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2.3.3 동선

도서관의 동선계획은 크게 외부 동선계획과 내부 동선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 동선 계획은 이용자 동선, 관리자 동선 등 보행자 동선과 이용자 차량 동선, 서비스 차량동선 등 차량동선으로, 그리고 내부 동선계획은 각 층 간을 연결시켜주는 수직 동선과 각 층에서 원 활한 흐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수평 동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선계획에는 장애인 의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며 동선 간에 상호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유병 장 2009, 34-35).

대학도서관의 동선은 대상에 따라 이용자, 직원, 상호대차 등 도서관자료의 이동을 위한 동선 등 3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용자의 동선과 직원의 동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짧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호간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동선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출입구를 계획하는 것이 좋다(김창언, 김종환, 김진원 2008, 639). 모든 공간의 동선계획은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자료접근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한다(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03, 18).

2.3.4 규모 및 공간

도서관의 규모는 해당 도서관의 기능, 자원의 수준, 장서의 크기, 이용 가능한 공간, 타 도서관과의 근접성 등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대학마다, 건물계획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대학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공간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적정 규모는 그 도서관 전체가 예상하는 자료계획과 이용 예측 등에 기초를 두어 각 스페이스에 필요한 면적을 산출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내부의 여러 시설이나 설비의 규모가 그 시설 전체규모에 적당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植松貞夫 1999, 29).

도서관에서 공간계획은 이제 전통적인 공간 구성 방식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정보를 검색할 때 우선 먼저 웹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학술연구는 일반적으로 디지털로 바뀌어가고 있다. 연구자, 교수 및 학생들은 디지털로 정보를 검색하고 찾고 처리한다. 그들이 도서관에서 정보를 찾을 때 종이 자료의 이용은 갈수록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2010). 따라서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열람실에 물리적 자료와 디지털 자료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이들 자료의 특성이 강화되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편리하게 이용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도서관의 공간구성은 종이 자료와 디지털 자료를 두는 서가군과 열람석, 그리고 IT기반의 개인 및 그룹별로 구분된 다양한 학습공간, 휴식 및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보존서고, 전시공간, Information desk, Service desk, 상호대차 공간, 사무·작업 공간, 로비, 출입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학술연구의 기반시설이므로 연구, 교육, 학습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도서관 내부의 공간구성은 미래를 위한 공간과 향후 변경가능성을 감안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독일도서관협회는 도서관 구조의 중요한 기본원칙 중의 하나로 “각 도서관에 제대로 교육받은 책임자급 전문사서인력의 배치, 적절한 도서관 봉사를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설계된 건물과 공간의 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Lux, Claudia 2002, 21). 그리고 공간 계획은 가독성과 가변성이 있도록 중첩된 층간의 열린 구조로 계단과 메자닌에 의한 공간으로 하고, 평면계획은 오픈플랜(open-plan)으로 가구 등에 의하여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열람자들이 자유롭게 자료를 찾고 가까운 곳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가구의 배치를 통해서 다양한 열람자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임호균 2007, 3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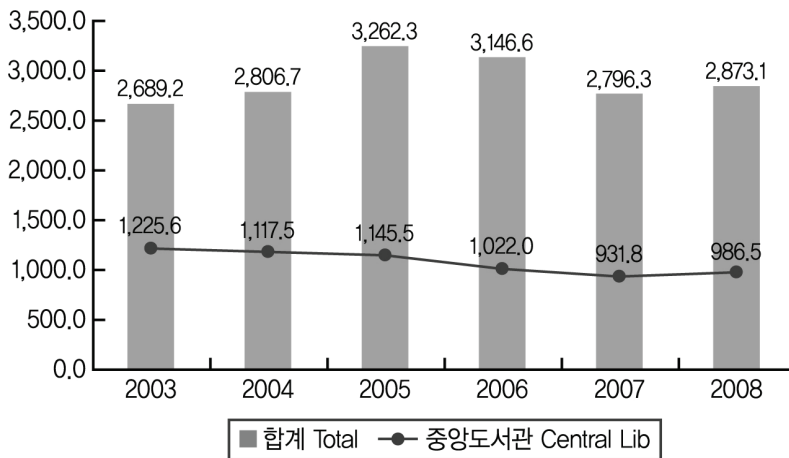
그리고 도서관의 규모와 공간계획에는 서가 간격도 고려되어야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이용자가 많은 개가열람실의 서가 간격은 2.1~2.4m가 되어야 한다(植松貞夫 1999, 36).

3. 큐슈대학 부속도서관 운영현황 및 중앙도서관 공간구성 분석

3.1 큐슈대학 부속도서관 운영현황 분석

〈그림 3〉 큐슈대학 부속도서관의 1일 평균 도서관 이용자수는 2005년, 2006년에 조금 증가하다 현재는 정체 상태에 있고 중앙도서관은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료의 디지털화와 컴퓨터,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교수, 학생 등 이용자의 정보접근에 대한 새로운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이 정보를 축적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용자가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거나 대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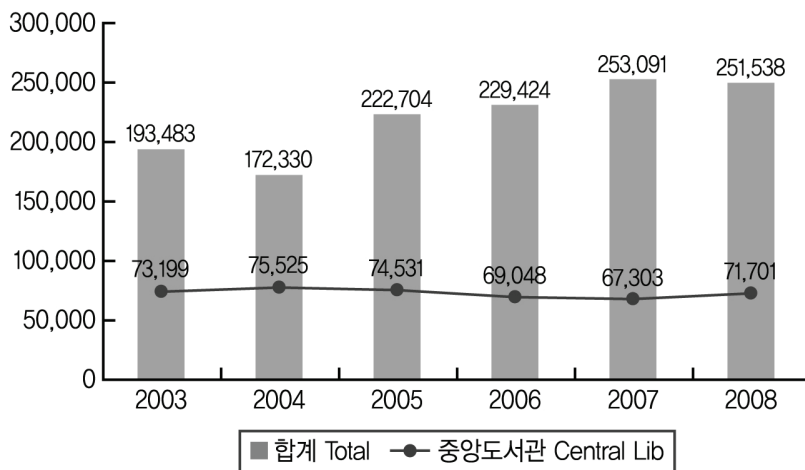


※출처: 九州大学附屬圖書館年報(要覽) 2004/2005-2008/2009 내용 편집
 〈그림 3〉 1일 평균 이용자수(1Day Number of users)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가 정보를 얻고 조용한 공간을 찾기 위해 도서관을 찾아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동료들과 커피를 한잔하기 위해,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해서이다(Albanese 2004; 정미경 2008, 111 재인용). Information Commons를 설치한 후 도서관 이용률의 조사에 따르면 Westminster대학 Giovale도서관의 경우 약 20%(Malenfant 2006, 282; 정재영 2007, 204 재인용), Indiana대학 도서관의 경우 약 20%, Iowa대학 도서관의 경우 약 15%(Albanese 2004, 32-33; 정재영 2007, 204 재인용), New Orleans의 Loyola대학 도서관의 경우 13.8%(Albanese 2003, 34-36; 정재영 2007, 204 재인용), 그리고 Western Ontario대학의 King's College도서관의 경우 420%의 기록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King's College

Library Wins Award 1998, 150-151; 정재영 2007, 204 재인용). 큐슈대학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도 2010년 발행 예정인 연보에 따르면, 2009년 Cute Commons를 설치하고, 2010년에는 PC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08년보다 6.9%가 증가되었다.

〈그림 4〉 대출책수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도서관의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출책수가 2005년부터 증가한 것은 2004년까지는 중앙도서관, 의학도서관, 예술공학도서관, 치쿠시(筑紫)도서관, 롯폰마쓰(六本松)도서관 등 5개관의 도서관이 있었으나, 2005년에 이계도서관(현재는 이토도서관), 문계합동도서관 등 2개관이 증가한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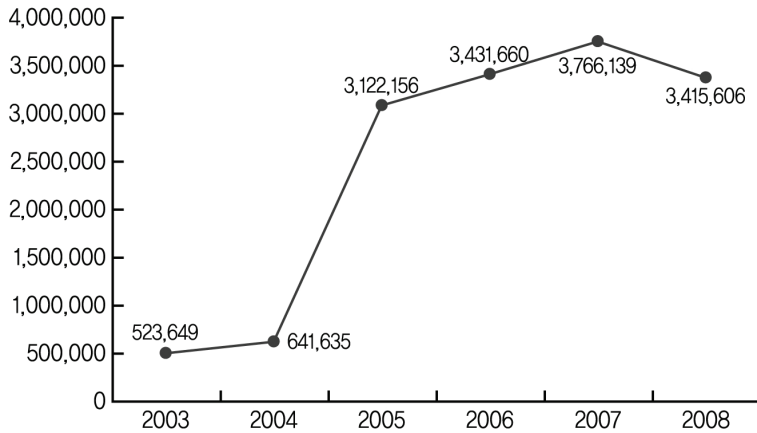


※출처: 九州大學附屬圖書館年報(要覽) 2004/2005-2008/2009 내용 편집
〈그림 4〉 대출책수(Circulation-I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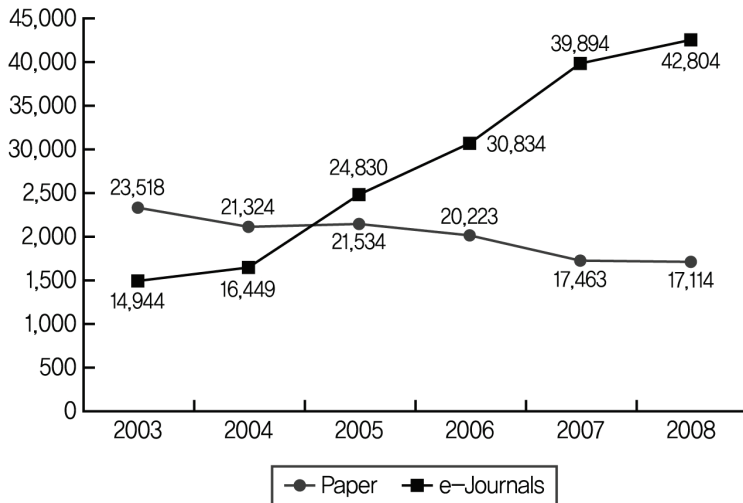
그러나 <그림 5> 정보검색서비스의 검색횟수는 200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들이 학습과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책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잡지의 수입종류 수를 분석해 보면, 2005년부터 인쇄매체보다 전자저널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71.4%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九州大學附屬圖書館年報(要覽) 2004/2005-2008/2009 내용 편집
 <그림 5> 정보검색서비스의 검색횟수(Databases searc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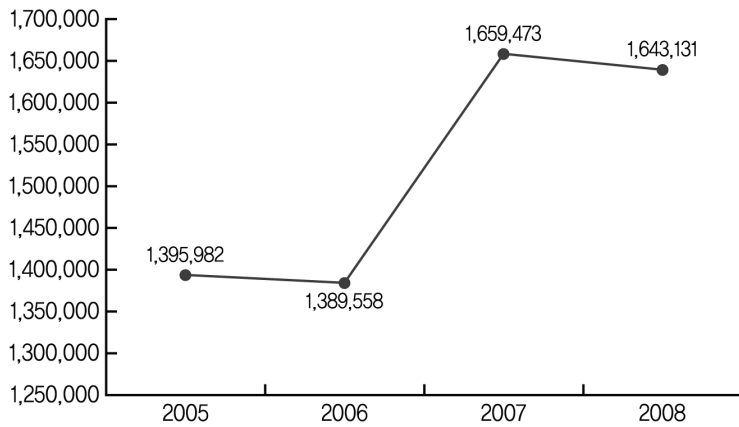


※출처: 九州大學附屬圖書館年報(要覽) 2004/2005-2008/2009 내용 편집
 <그림 6> 잡지수입종류 수(Current Journals Ti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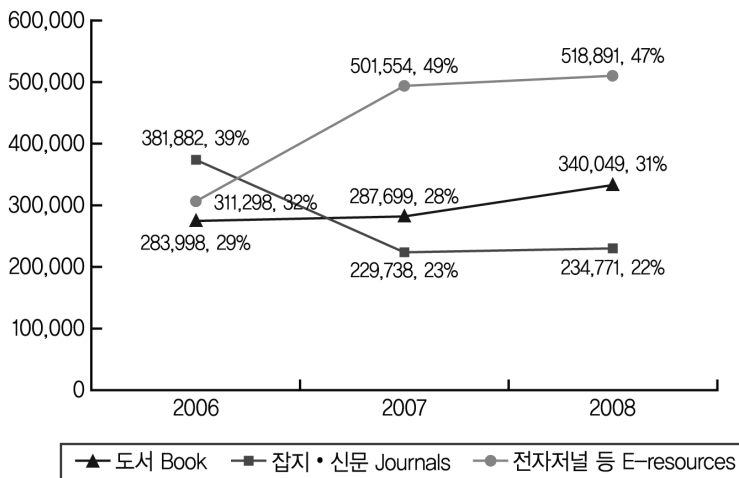
〈그림 7〉 전자저널의 이용건수 분석에서도 2007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술잡지는 대부분 전자저널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자료 구입비의 분석에서 2006년에는 잡지·신문비가 39%로 가장 많았고, 전

자저널 등 32%, 도서비 29% 순이었다. 그러나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전자저널 등 47%, 도서비 31%, 잡지·신문비 22% 등으로 전자자료에 대한 자료 구입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은 더욱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九州大學附屬圖書館年報 2005-2008/2009 내용 편집
〈그림 7〉 전자저널의 이용건수(e-Journals downloads)



※ 출처: 九州大學附屬圖書館年報 2006-2008/2009 내용 편집
〈그림 8〉 자료 구입비(Expenditures for library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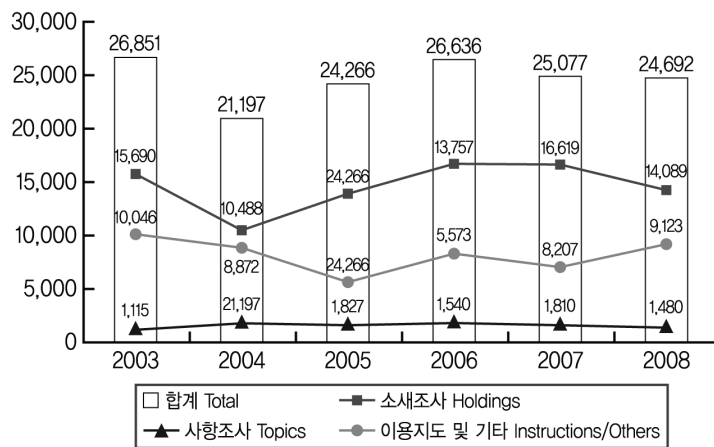
〈그림 9〉 레퍼런스서비스 건수는 2003년을 지나서부터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질문의 형태는 사서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조사, 이용지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큐슈대학 중앙도서관의 경우는 레퍼런스데스크가 2층에 있어 3층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큰 불편을 줄 것으로 보이며, 2층에 레퍼런스데스크가 있는 것은 2층 홀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 살롱(情報サロン)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검색에 관한 기술적인 질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따라서 레퍼런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이용자의 요구변화에 대응하는 레퍼런스데스크의 배치, 사서들의 레퍼런스서비스의 태도 변화, 서비스 설계나 계획 시 이용자의 의견 반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큐슈대학 레퍼런스서비스 현황조사에 따르면 IT와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 및 인터넷의 발달로 이용자는 인쇄매체보다는 전자매체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람테이블 이용현황 조사에서도 개가열람실의 이용률은 약 20~55%인데 비하여 정보 살롱은 90%를 넘어서고 있다(김은자 2010).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모든 도서관장서와 디지털도서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물리적 장서와 디지털 장서는 서로를 강화하지만 디지털 장서는 분명히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2010). 큐슈대학의 통계분석과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의 2010-2013년 전략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학술자료 중심의 대학도서관에서 디지털자료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도서관은 사람과 정보를 연결해 주는 곳이다. 이용자



※출처: 九州大學附屬圖書館年報(要覽) 2004/2005-2008/2009 내용 편집
〈그림 9〉 레퍼런스 건수(Reference transactions)

가 오지 않는 도서관은 존립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물리적 장서 중심의 열람실의 공간구성에서 인쇄매체와 디지털매체가 융합하는 주제 중심의 새로운 공간구성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3.2 큐슈대학 중앙도서관의 공간구성 분석

3.2.1 개요

큐슈대학 중앙도서관은 5층 건물로써 연면적은 13,668㎡(九州大學附屬圖書館 2006, 10),

200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장서수 98만2,945책, 잡지 소장 종류수 3만945종이다(九州大學附屬圖書館 2009, 18). 자료배치는 서고지층(書庫地階), 서고 1층(書庫1階), 2층, 3층 등 4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3층에는 국제교류코너, 제2정보살롱, 연습실, AV코너, 방송대학수신실, 개개열람실, 연구개실, 마이크로자료실 등이 배치되어 있어 도서관의 중심적인 열람실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10〉 참조).

2층에는 종합안내/대출·반납, 레퍼런스데스크, 상호이용, 제1정보살롱, 도서관라운지,



〈그림 10〉 3층 배치도



〈그림 11〉 2층 배치도

신문열람실, Cute Commons, 참고도서, 신작잡지실, 자유열람실, 복사실 등 참고·연속간행물실, 휴식 및 이용자지원의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서고 1층은 밀집서고로서 2층, 3층에서 상대적으로 이용이 적고 오래된 도서관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그림 12〉 참조).

서고지층은 서고 1층과 같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밀집서고와 아울러 보존서고가 있다(〈그림 13〉 참조).

3.2.2 공간구성 분석

공간구성의 기본이 되는 도서관의 방위를 분석해 보면, 열람공간은 햇볕의 직사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북동, 남동쪽을 향하고 있어 도서관자료를 열람하거나 보존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도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의 대출과 열람이 도서관의 기본적인 활동이며 건물의 주층은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서비스데스크, 레퍼런스데스크, 복사실 등과 건축도 설비도 이루어지



〈그림 12〉 서고 1층 배치도



〈그림 13〉 서고지층

게 된다. 큐슈대학 중앙도서관의 층별 배치는 1층(서고 1층, 서고지층) 밀집서고, 2층 참고도서 및 잡지·신문, 서비스데스크, 레퍼런스데스크, 출입구, 3층 도서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3층에서 자료를 열람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1층 밀집서고에 있으면 2층을 거쳐 가야 하거나 레퍼런스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또는 책을 복사하기 위해서도 2층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동선상의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도서관의 규모나 면적배분은 서비스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층을 달리 하더라도 일반 플로어는 막힘이 없이 서로 통하게 하여 시각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2층과 3층의 내부 이동통로의 경우 평상시에는 문을 닫아 놓도록 되어 있다. 만약 그 이유가 계단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건축자재로 보안을 하여 평상시에도 개방을 해두는 것이 시각적 연결이나 이용자의 통로의 인지 등 이용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2층 개개열람실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의 정보검색서비스의 검색 횟수와 <그림 6>의 전자저널의 이용건수를 보았을 때, 많은 이용자는 참고도서와 신착 잡지는 인터넷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유열람실은 중앙도서관의 열람테이블 이용현황 조사에서 이용률이 2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자 2010). 이는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의 도입으

로 모든 열람공간에 이용자의 소지품을 자유롭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유열람실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2층 열람공간은 전면적인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층 AV코너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과 PC로 대체되어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학도서관 이용자도 교양을 증진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므로 이용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하다면 장비의 교체와 적극적인 자료의 수집을 통해 이용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4층의 시청각실은 구관에 이어 신관을 증축하면서 새로 생겨난 시설로 출입구가 도서관의 주 출입구의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불편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각 열람실의 열람테이블은 대부분 6인용으로 집중 배치되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은자 2010).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이 건립된 지 오래되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주출입구는 경사가 심하고 계단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그림 13>의 직원이 이용하는 1층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 열람실의 서가와 서가 사이, 열람테이블 사이, 1층의 밀집서가 등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간격이 부족하다.

반면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살롱, 커뮤니티 공간인 도서관 라운지, Cute

Commons 등의 이용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편안한 공간,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층, 3층의 열람공간은 도서관환경의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변화에 대응하여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큐슈대학 중앙도서관의 공간구성 제안

큐슈대학 부속도서관의 운영현황 및 중앙도서관의 공간구성 분석을 근거로 중앙도서관의 새로운 도서관 모델인 하이브리드도서관을 구상하였다.

이 모델을 구상하는 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기존의 공간 및 건물의 형태를 최대한 활용한다.

둘째, 시설은 이용자 및 관리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셋째, 전체 공간을 종이 자료 및 디지털 자료 공간을 중심으로 워크스테이션 공간, 열람 공간, 학습·연구공간, 문화공간 등으로 구분한다.

넷째, 각 층에 자료의 배치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 크게 2개 분야의 주제로 구분하여 그 중에서 이용률이 높은 주제를 접근성이 좋

은 2층으로 한다. 그리고 각 층에서도 이용률이 높은 분야의 주제를 출입구 가까이 배치한다.

다섯째, 모든 열람테이블에는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 랜시설(무선랜 포함), 개별 조명 등을 설치하고 워크스테이션 공간에는 안락한 시트 및 테이블을 설치한다. 그리고 열람테이블은 1인용, 2인용, 지도 등 넓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용도에 맞추어 적절히 배치하고, 마주보는 테이블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배려한다.

여섯째, 각 층의 출입구에 레퍼런스데스크를 설치하여 참고질의에 대한 응답과 IT공간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레퍼런스데스크에서는 가능하면 직원의 시선이 모든 곳에 미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열람실의 공간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가 연구, 교육, 학습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는데 이제는 전통적인 종이 자료보다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에 기본 개념을 두었다. 따라서 기존의 중앙홀에 있는 제1정보살롱은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한 정보 검색을 위한 인터넷 이용자나 메일을 확인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남겨 두고 각 층에 분산·확대 배치하였다.

2층의 참고도서, 신착 잡지 등도 각 층에 다른 자료와 함께 주제 중심으로 배치하여 이용자가 같은 주제의 자료는 자료의 형태와 관계없이 한 장소에서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원

스톱 서비스의 하이브리드 도서관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연구, 교육 및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2층의 자유 열람실, 3층의 폐가열람실을 토론 및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2층의 레퍼런스데스크는 3층에도 추가로 신설하였다. 그 위치는 가능하면 열람실의 중앙에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의 시선이 모든 공간 및 시설물에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기존 공간(구관 및 신관의 분리)의 형태로 불가피하게 동선을 고려하여 각 층의 열람실의 출입구에 두고 배후에는 직원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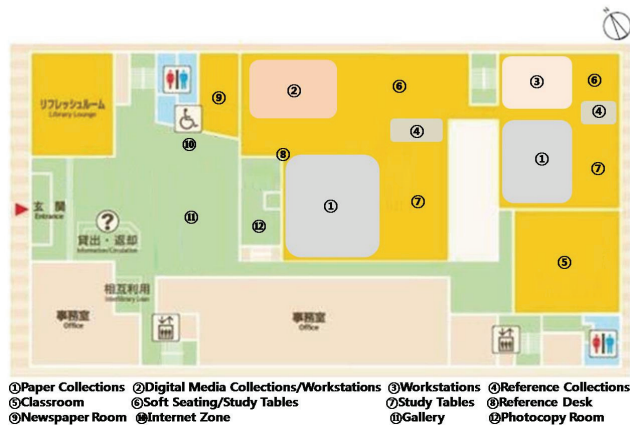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이용이 활발하지 않는 3층의 AV코너는 각 층에 분산·배치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배려하고 특히 이용자의 교양증진과 여가활동도 중요하므로 멀티미

어 자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료의 적극적인 수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존의 AV코너에는 같은 층 신관의 연구실을 옮겨와 1인 또는 2인 이상의 연구 및 토론 공간이 되도록 하여 기존의 연습실과 함께 다양한 협업공간이 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4〉 2층은 주 출입구가 있는 주 층으로, 중앙홀의 현관 입구에 있는 종합안내/대출·반납 데스크, 도서관 라운지, 신문열람실 등은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제1정보살롱은 인터넷 존의 일부 기능만을 남기고 나머지 공간에는 갤러리를 신설하였다. 당초에는 갤러리 위치에 교양잡지, 신문 등을 볼 수 있는 브라우징 존(Browsing Zone)과 갤러리를 함께 두는 것으로 구상하였으나, 도서관 라운지에 이미 브라우징 기능이 있어 갤러리를 단독으로 하였다.

열람실 입구에는 중앙홀에 있던 레퍼런스데



〈그림 14〉 2층 배치도(안)

스크를 옮겨와 이용자들의 가까이에서 참고질의에 대한 응답과 IT공간 이용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복사실의 일부는 직원의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서가는 종이 자료 이용자와 멀티자료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멀티자료 열람테이블과 종이 자료 열람테이블 사이에 배치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종이 자료 이용자의 시각적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열람실 안에는 동선을 고려하여 연구, 교육 및 학습을 위한 공간을 개인 및 그룹별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존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여 자유열람실은 큰 규모의 토론 및 학습공간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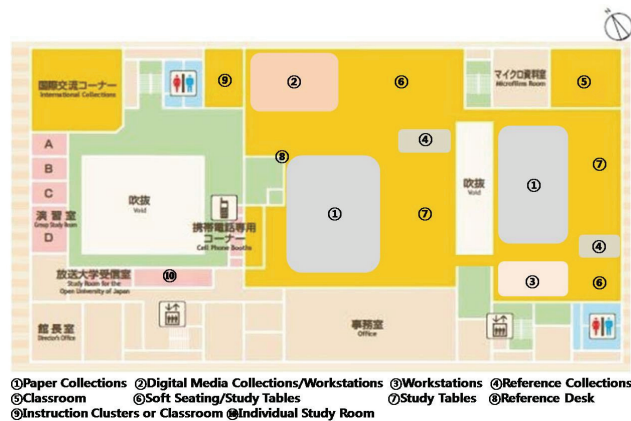
〈그림 15〉의 3층은 국제교류코너, 연습실, 방송대학수신실, 제2정보살롱 등은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고, AV코너는 열람실의 멀

티 자료 공간으로 이동·배치하고, 그 자리에는 3층 신관의 연구개실을 이전하여 강의실, 연습실 등과 함께 개인 및 그룹별 다양한 연구, 토론, 학습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입구에는 레퍼런스데스크를 신설하여 참고질의 및 IT공간의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데스크 배후의 공간은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폐가열람실은 중 규모의 토론 및 학습공간으로 하였다.

5. 결론

하이브리드도서관은 전통적인 종이 자료와 디지털 자료가 결합된 개념의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매체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공간에 모든 자료를 주제 중심으로 배치하여 이용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공



〈그림 15〉 3층 배치도(안)

간구성인 하이브리드도서관이, 도서관의 환경 변화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라는 관점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기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여러 가지 도서관의 기능을 주제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에 의해 이용자에게 연구·교육환경, 그리고 협업을 강조하는 Learning Commons의 개념을 도서관 전체로 확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큐슈대학 중앙도서관을 연구 대상으로 하이브리드도서관의 모델을 실현하는 안을 구상하였다. 큐슈대학 부속도서관은 모두 7개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앙도서관은 큐슈대학을 대표하는 종합 도서관이다. 큐슈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토캠퍼스로의 이전계획에 의해 2017년까지 중앙도서관을 이토지구로 옮기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중앙도서관의 공간을 하이브리드도서관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시도해, 그 결과가 새롭게 건립되는 중앙도서관의 건축계획에 하나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학술연구 기반시설로서 이용자의 연구 및 교육·학습 등을 위한 이용 요구에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은 사회·문화적 환경, 도서관 환경, 도서관 기능 등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하고, 공간구성 등 시설도 이러한 변화에 기능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도서관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서관 기능을 담는 그릇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입지 및 방위, 동선, 규모 및 공간구성 등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융통성, 간단성, 접근성, 확장성, 다양성, 안락성, 안전성 등을 두루 갖추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정보전달 매체의 변화, 도서관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큐슈대학 부속도서관의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향후 종이 자료의 이용은 더욱 감소하고 디지털 자료의 이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도서관은 사람과 정보를 연결해주는 곳이다. 이용자가 없는 도서관은 존립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고도로 이용하게 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은 종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이용자의 요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물리적 장서 중심으로 한 열람실의 공간구성에서, 인쇄 자료와 디지털 자료의 이용을 융합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주제 중심의 자료나 서비스를 통합해 이용자에게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공간구성인 하이브리드도서관의 모델이, 도서관에 있어서 이용자의 정보서비스를,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2007. 『2007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인용 2010.03.10].
 <http://www.dibrary.net/ndl_ic/ndl_ic.jsp>.
- 김창언, 김종환, 김진원. 2008. 『건축계획·설계론』. 서울: 서우.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박인규. 2002. 도심지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도서관이용 행동구조에 관한 연구. 『國會圖書館報』, 39(1): 63-91.
- 『서울경제』, 2010. [지구촌 So Hot!] 美 전자도서관 속속 설립... 책 없는 도서관 는다, 5월 20일. [인용 2010.05.20].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cono/201005/e2010052017474169880.htm>>.
- 유병장. 2009. 『사서의 참여여부가 공공도서관 건립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임호균. 2007. 『공공도서관 공간체계의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프랑스 미디어테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정미경. 2008. 학교도서관의 Information Commons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2): 109-146.
- 정재영. 2007. 대학도서관의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 적용 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201-221.
- 차미경. 2006. 유비쿼터스 시대 도서관 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325-343.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 한국학술 정보이용 현황. [인용 2010.04.27].
 <http://www.keris.or.kr/data/sum2/3page/data/KERIS_3400.xls>.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03.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KT경제경영연구소. 애플 iPad 공개...미디어 시장에도 근본적 변화 유발 가능. 『2010년 2월 2주차 주간동향』. [인용 2010.05.10].
 <http://www.digieco.co.kr/KTData/DataRoom/PDF/2월2주차_해외동향1_digieco_1002.pdf>.
- 金銀子. 2010. 図書館閲覧テーブルの利用頻度に影響を及ぼす要因に関する研究[I] - 公共図書館及び大学図書館利用者の行動調査を中心に. 『九州大学附属図書館研究開発室年報 2009/2010』. 발행 예정.
- 九州大学附属図書館. 2005. 『九州大學附属図書館要覽 2004/2005』.
 _____ . 2006. 『九州大學附属図書館要覽 2005/2006』.
 _____ . 2006. 『九州大學附属図書館年報 2005』. [cited 2010.04.02].
 <<http://www.lib.kyushu-u.ac.jp/media/publications/nenpo2005.pdf>>.

- _____. 2007. 『九州大學附屬図書館年報 2006』. [cited 2010.04.02]. <<http://www.lib.kyushu-u.ac.jp/media/publications/nenpo2006.pdf>>.
- _____. 2007. 『九州大學附屬図書館年報 2007』. [cited 2010.01.13]. <http://www.lib.kyushu-u.ac.jp/media/newlib/plan_iten2007.pdf>.
- _____. 2008. 『九州大學附屬図書館年報 2007/2008』. [cited 2010.04.02]. <http://www.lib.kyushu-u.ac.jp/media/publications/nenpo2007_2008.pdf>.
- _____. 2009. 『九州大學附屬図書館年報 2008/2009』. [cited 2010.04.02]. <http://www.lib.kyushu-u.ac.jp/media/publications/nenpo2008_2009.pdf>.
- 植松貞夫. 1999. 建築から図書館をみる. 東京: 勉誠出版.
- 日本フェイリニグ. 1998. 公共図書館の計画と建設の手引. 新訂版. 東京: 日本フェイリニグ.
- Albanese, Andrew Richard. 2004. "Campus Library 2.0." *Library Journal*, 129(7): 30-33. 재인용: 정재영, 대학도서관의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 적용 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7, 38(3): 201-221.
- Albanese, Andrew Richard. 2004. "Campus Library 2.0." *Library Journal*, 129(7): 30-33. 재인용: 정미경, 학교도서관의 Information Commons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8, 42(2): 109-146.
- Albanese, Andrew Richard. 2003. "Deserted No More." *Library Journal*, 128(7): 34-36. 재인용: 정재영, 대학도서관의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 적용 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7, 38(3): 201-221.
- Davis, Marry Ellen. 1998. "King's College Library Wins Award."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59(3): 150-151. 재인용: 정재영, 대학도서관의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 적용 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7, 38(3): 201-221.
- Lux, Claudia. 2002. 독일 도서관의 구조와 새로운 경향. 『남산도서관 개관 80주년 기념 강연회 발표집』, 5-44.
- Malenfant, Chuck. 2006. "The information Commons as a Collaborative Work-space." *Reference Service Review*, 34(2): 279-286. 재인용: 정재영, 대학도서관의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 적용 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7, 38(3): 201-221.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Strategic Plan 2010-2013. [cited
2010.04.20].
<<http://www.kb.nl/bst/beleid/bp/2010/index-en.html>>.

York University Libraries, [cited 2010.03.
08].
<<http://www.library.yorku.ca/ccm/Home/preview/infolit/commons/learning-commons.en>>.